



#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sup>1)</sup>와 그기능: 야훼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홍성혁(서울신대)

## 1. 여는 말

요엘서에 묵시적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그 역사적 배경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묵시적 모티프의 유무와 이 모티프가 들어있는 단락의 소재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또한 매우 격렬하다. 역사적 배경과 묵시적 모티프의 소재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같은 논쟁 속에서 문학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의 대화를 통해 요엘 4장에 소재한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내용과 기능을 역사적

\* 본 논문은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연구 지원 논문임을 밝힙니다.

1) '모티프'는 주제보다 넓은 의미이며, 문장 단위 이상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상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배경과의 상관성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엘서 전체 구조 속에서 묵시적 모티프의 소재 여부와 연관된 본문 구조와 통일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묵시적 모티프의 폭넓은 소재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요엘 4장에 근거하여 다양한 묵시적 모티프 가운데서 ‘야훼의 날’로 대표되는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를 집중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요엘 4장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학적 구조를 설정한 후에 그 구조가 묵시적 종말론과 이 모티프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묵시적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연계시켜 이 모티프가 강조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이 모티프가 특정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는지 밝힐 것이다. 끝으로 요약과 현대에 주는 의미를 시사함으로써 마무리할 것이다.

## 2. 요엘서의 구조, 통일성과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

요엘서의 묵시적 모티프에 관한 논의는 본문의 구조 및 통일성에 관한 논의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논의가 본문의 연대 설정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요엘서는 각기 이질적인 두 부분<sup>2)</sup>으로 구성돼 있는데, 후반부가 후대에 편집된 묵시적 모티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이란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는 ‘야훼의 날’에 발생할 종말론적 현상을 거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본문의 통일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둠(B. Duhm)은 ‘야훼의 날’에 관한 구절(욘 1:15; 2:1 후반, 11 후반)을 제외하고 메뚜기 재앙을 다루는 요엘 1장 1절-2장 17절을 포로기 이후

---

2)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된 내용을 참고하라.

시대에 요엘이 저작한 것으로 본다. 요엘 1장 15절; 2장 1, 11절 후반은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추가된 부분으로 간주된다. 요엘 2장 18절-4장 21절도 ‘야훼의 날’로 대변되는 종말론에 기울어진 마카비 시대의 묵시 저자에 의해 추가된 부분으로 본다.<sup>3)</sup> 그는 이 묵시 저자가 ‘야훼의 날’에 관한 묘사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미래 종말 사건을 알리는 징조로 변경시켰다고 본다. 뷰어(J. Bewer)는 둠과 동일하게 1, 2장과 3, 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보지만, 그와는 약간 다르게 세 단계의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요엘 자신이 1, 2장(1:15; 2:1b, 2, 6, 10, 11, 27 제외)과 3장 1절-4a절; 4장 2a, 9-14a절을 저작했다. 둘째, 편집자가 다른 예언서에 근거하여 군데군데 첨언을 하면서 1, 2장과 3, 4장을 연결시키려 했다. 셋째,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체로 서술한 4장 4-8절은 더 후대에 삽입됐다. 묵시적 관심을 가진 후대의 편집자가 첨언·삽입을 통해 ‘야훼의 날’에 대한 예언 형식을 갖추게 한 것으로 본다.<sup>4)</sup> 요엘 2장 18절을 기준으로 양분하는 둠과 달리 요엘서 전체를 양분하는 기준 구절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요엘 2장 27절까지를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는 전반부로 보고 메뚜기 재앙 대신에 ‘야훼의 축복의 날’을 다루는 율 3장 1절 이후를 후대 묵시 저자의 손길이 개입된 후반부로 양분하는 견해도 있다. 히버트(T. Hiebert)는 둠과 달리 요엘 2장 18-27절을 요엘 1장 1절-2장 17절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엘 2장 18-27절에 나오는 구원 신탁의 언어가 요엘 1장 2절-2장 17절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바냐서와의 유사성 때문에 요엘 1장 2절-2장 27절을 주전 7세기에 기원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요엘 3-4장

3) B. Duhm, "Anmerkungen zu den zw. li. Propheten," ZAW 31 (1911), 184-88.

4) J. A. Bew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ICC; Edinburgh: T & T Clark, 1911), 49-56.

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초래할 목시적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본다. 특히, 4장은 대적을 패배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킬 신적 전사에 관한 찬양시로 목시 저자들에 의해 포로기 이후에 되살려진 양식으로 간주한다.<sup>5)</sup> 이 경우에 요엘 2장 1-11, 20절이 메뚜기 재앙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야훼의 도구로서 유다를 공격하는 북쪽 군대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내용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돛, 뷰어, 히버트 세 사람은 요엘서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전반부는 요엘 자신이 저작한 것으로 보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포로기 이후와 주전 7세기로 나눈다. 후반부에 대해서는 요엘이 아닌 편집자의 손길이 개입된 것으로 보며, 모두 포로기 이후 시대 혹은 그보다 늦은 시기에 목시 저자의 종말론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플뢰거(Otto Plöger)는 요엘서에 종말론적 목시적 관점이 추가 편집됐다는 돛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플뢰거는 본문 전체를 보다 더 세분화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눈다(을 1:1-2:27; 3:1-5; 4:1-21[후대에 삽입된 을 4:4-8 제외]).<sup>6)</sup> 요엘 1장 1절-2장 27절에 사용된 ‘야훼의 날’ 모티프는 당대에 겪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 단락(을 4:1-21)은 ‘야훼의 날’의 미래적 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락(을 1:1-2:27)에다가 종말론적 색채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의 희망을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분출로 대표되는 야훼의 종말론적 개입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주전 400~300년 사이에 두 번째 단락(을 3:1-5)을 수정했다고 본다. 요엘 4장 4-8절은

5) T. Hiebert, "Joel, Book of," D. N. Freedman(ed.), *ABD* (vol. 3; New York: Doubleday, 1991), 873-80.

6) O. Plöger, *Theocracy and Eschatology* (trans. S. Rudman; Richmond: John Knox, 1968), 96-105.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추가된 산문체적 특성으로 가장 늦은 시기인 헬라 시대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 요엘 4장 1-3절에서는 열방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반면에, 요엘 4장 4-8절에서는 시돈, 두로, 블레셋과 연관된 구체적 사건으로 언급된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첫째, 요엘 1장 1절-2장 27절의 ‘야훼의 날’을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간주할 때, 요엘 2장의 야훼 군대의 공격을 메뚜기 재앙의 또 다른 은유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요엘 2장을 메뚜기 재앙이란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엘 1장의 재앙과 요엘 2장의 재앙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요엘 3, 4장이 요엘 1장 1절-2장 27절의 ‘야훼의 날’ 은유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종말론적 구원의 혜택을 온 백성이 아닌 반(反)신정주의적 분파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sup>7)</sup>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플뢰거 또한 후반부를 포로기 이후의 반(反)신정주의적 유대교의 상황과 맞물린 묵시적 종말론과 결부시켜 요엘서의 묵시적 모티프를 긍정하는 점은 앞의 세 사람의 견해와 일치한다.

요엘서를 전 후반부로 나눠 편집 시기에 차별을 두려는 입장과 반대로, 본문 전체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요엘의 저작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볼프(H. W. Wolff)는 요엘 4장 4-8절의 경우, 다른 저자에 의한 첨언의 가능성을 시인하는 반면에, 요엘 4장 18-21절의 경우에는 나중에 요엘 자신에 의해 첨언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요엘서 전체의 기본 구조는 요엘이란 단일 저자의 작품임을 주장한다. 역사적 요소와 묵시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책 내용이 요엘 2장 18-20절을 기준으로 상호 대칭적임을 강조한다. 요엘 2장 18-20절 앞에 위치한 탄식을 거론하는 내용이 탄식의 결과로서의 야훼의 반응을 다루는 그 뒤의 내용과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볼프가 주장하는 대칭

7) 윗글, 106.

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1:4-20	식량 결핍에 대한 탄식	2:21-27	식량 결핍의 종식 약속
2:1-11	예루살렘에 임박한 종말론적 재앙 선포약속	4:1-3, 9-17	종말론적 재앙 종식
2:12-17	‘야훼께로 돌아오라’는 부름	3:1-5	영 부름의 역사와 종말론적 필요 조건인 시온에서의 구원

여기서 요엘 2장 18-20절이 빠져 있는데, 이는 요엘 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탄식에 대한 야훼의 반응을 도입하는 단락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칭적 구조가 본문의 통일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요엘 2장 27절과 4장 17절에 나타나는 ‘야훼 인지’ 공식과 1-2장과 3-4장 사이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과 표현들의 상관성은 동일 저자에 의한 저작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한다.<sup>9)</sup> 볼프가 요엘서에서 역사적 요소와 묵시적 요소의 공존을 이분법적 구도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듄, 뷰어, 히버트처럼 요엘 1-2장과 3-4장을 각각 역사적 요소와 묵시적 요소로 반분하면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개입의 결과임을 말하지 않는다. 플뢰그의 사회학적 관점에 영향을 받은 볼프는 주전 4세기에 종말론적 관점과 반(反)신정주의적 경향을 지녔던 요엘 자신이 저작한 것으로 본다.<sup>10)</sup> 율 1장의 메뚜기 재앙이란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탄식 사건이 요엘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야훼의 날’로 표상되는 종말에 묵시 군대에 대한 심판과 도래할 메시아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시온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비록 부분적인 편집의 가능성을 열어

8) H. W. Wolff, *Joel and Amos*, Hermeneia, Trans. W. Janzen, S. D. McBride and C. A. Muenchow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7.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lff, 율글, 7-8을 보라.

10) 율글, 12.

놓을 뿐만 아니라, 요엘 2장 18절이 양식과 내용에 있어 전반부와 단절되는 완전한 전환점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묵시적 해석이 범세계적 차원(을 4:2, 11)과 현재와 미래 시간의 뚜렷한 대조(1:2b; 2:2b)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엘서의 묵시적 특성을 잘 짚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린스루(Willem, S. Prinsloo)는 볼프처럼 특정 전환점(을 2:18-20)을 기준으로 요엘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대신에 표제어(을 1:1)를 제외한 나머지 각 단락(1:2-14; 1:15-20; 2:1-11; 2:12-17; 2:18-27; 3:1-5; 4:1-17; 4:18-21)사이의 관계가 점층되면서 본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sup>11)</sup> 곧, 각 단락이 동일·유사 단어·구모티프의 반복에 의해 단계적으로 연결되면서 유다의 궁극적 회복을 말하는 단락(을 4:18-21)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을 1:2-14)은 메뚜기 재앙에 의해 유발된 사건을 묘사한다. 두 번째 단락(을 1:15-20)은 훨씬 더 위협적인 재앙인 ‘야훼의 날’에 관하여 다룬다. ‘야훼의 날’의 징조를 메뚜기 재앙과 대비시켜 묘사함으로써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야훼의 날’의 징조임을 말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락(을 2:1-11)은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시킨다. ‘야훼의 날’에 발생할 야훼의 진노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시작되어 열방과 우주적 차원으로 나아감을 말하고자 한다. 이어 요엘 2장 12-17절은 야훼의 경고로부터 회개 요구로 넘어가 회개가 야훼에 대한 전심을 다한 회개여야 함을 말한다. 요엘 2장 18-27절은 회개 요구에 대한 순종적 반응과 회복의 희망의 주체가 야훼임을 강조한다. 요엘 3장 1-5절도 앞 단락과의 연속성에 기대고 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비를 내려주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체가 야훼임을 선포한다. 요엘 4장 1-17절은

11) W. S. Prinsloo,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oel*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5).

유다에 대한 억압으로 야훼의 분노를 초래한 열방에 대한 전면적 심판을 다룬다. 요엘 4장 18-21절은 유다에 대한 약속과 대적에 대한 재앙 위협이 대조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야훼가 시온에 임재하실 것이며, 심판과 재앙은 옛일이 되고 축복의 역사를 전개시킬 야훼의 행위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경사돼 있다. 구조적 분석에 기초하여 본문의 통일성을 옹호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반면에,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란 자연적 재앙과 경제적 위기의 해소책의 절정에 열방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놓여 있다는 점은 논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요엘 4장 18절의 야훼의 시온 임재와 이스라엘에 대한 풍성한 축복의 상관성은 시온에서의 야훼의 종말론적 통치의 가능성에 일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날’과 종말론적 시대의 전개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4:18)로 인한 생명의 풍성함이 프린스루가 지칭하는 소위 ‘낙원적 종말론(paradisial eschatology)’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요엘서에 함유된 종말론적 요소를 재확인시켜주는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가렛(Duane A. Garrett)은 요엘서 전체를 ‘야훼의 날’ 모티프에 의해 빈틈없이 엮여진 신학적 구성물로 본다. 전통적으로 주장돼 온 요엘 1-2장을 역사적 관점으로, 요엘 3-4장을 묵시적 관점으로 보면서 후자를 후대의 편집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책 전체가 서로 맞물린 두 개의 교차대구 구조에 의해 모형론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데 있다. 두 개의 교차대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1:1-20 심판: 메뚜기 재앙
- B 2:1-11 심판: 묵시적 군대에 의한 심판
- C 2:12-19 전환점: 회개(12-17절)와 야훼의 응답 신락 도입문(18-19절)
- B' 2:20 용서: 묵시적 군대(북쪽 군대)의 파멸
- A' 2:21-27 용서: 메뚜기 재앙에 의해 황폐된 땅의 회복

- A 2:20 심판: 목시적 군대의 파멸
- B 2:21-27 은혜: 땅의 회복
- B' 3:1-5 은혜: 영 부음의 역사
- A' 4:1-21 심판: 열방의 파멸<sup>12)</sup>

앞의 구조에서 A(을 1:1-20)와 B(을 2:1-11)는 각각 메뚜기 재앙과 목시 군대에 의한 유다 심판을 다룬다면, B'(을 2:20)와 A'(을 2:21-27)는 각각 목시 군대의 파멸과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된 땅의 회복을 말함으로써 유다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구조의 중앙에는 심판으로부터 회복으로의 전환 단락이 놓여 있다. 여기에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회개를 다루는 요엘 2장 12-17절과 회개에 대한 야훼의 응답으로 풍성한 수확과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통해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회개에 대한 야훼의 응답 내용을 담고 있는 뒷 구조는 앞 구조의 일부(을 2:20, 21-27)를 포함하고 있다. 양자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앞 구조에서는 유다의 회개에 초점이 있었다면, 뒷 구조에서는 야훼의 은혜에 의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을 2:21-27)가 물질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B'(을 3:1-5[한, 2:28-32])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뒷 구조의 외연에 해당하는 요엘 2장 20절과 4장은 대조적으로 북쪽 군대를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다.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발생할 야훼의 날에 관한 내용이다. 결국 야훼의 날에 열방은 심판을 받고 유다가 회복된다는 종말론적 전망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구조의 긴밀성은 모형론적 발전에 의해서도 입증된다고 본다. 메뚜기는 목시적 군대에 대한 모형이고, 땅의 회복은 영 부음에 대한 모형이고, 북쪽 군대의 파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모형이라고 본

12) Duane A. Garrett, "The Structure of Joel," *JETS* 28 (1985), 295-96.

다.<sup>13)</sup> 그러나 묵시 군대나 묵시적 전망이 어떤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어느 시대든지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큰 재앙이 발생할 때, 묵시적 전망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그의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킨다.

볼프와 프린스루와 가렛이 입증하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요엘 1-2장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는 반면에, 요엘 3-4장이 묵시적 전망을 가진 저자의 손길이 개입됐다는 이분법적 구도는 탄탄한 짜임새를 가진 요엘서의 구조를 감안할 때, 논박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실현된다는 묵시적 모티프가 공존하는 것은 재확인된다. 특히, 가렛이 주장하고 있듯이 요엘 2장 1-11절이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야훼의 날에 유다를 공격하는 묵시 군대의 공격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요엘 2장 1-2, 10-11절의 천지의 격변과 진동은 확실히 역사적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sup>14)</sup> 쿡(Stephen L. Cook) 또한 요엘 3-4장은 물론 요엘 2장 1-11절에 가뭄과 메뚜기 재앙에 의해 촉발된 묵시적 모티프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요엘 1장 15절에 메뚜기 재앙에 촉발된 야훼의 날의 파멸 현상을 바빌론에 관한 이사야의 환상과 비교하며 단순한 종말론이 아닌 세상 끝을 지향하는 묵시적 종말론임을 주장한다(참고: 사 13:6).<sup>15)</sup> 이로써 우리는 요엘 3-4장만이 아닌 요엘서 전체에 묵시적 종말론의 모티프가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엘 4장은 구체적으로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를 어

13) 윗글, 297.

14) E. Achtemeier, *Minor Prophets I*, NIB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134-135.

15) Stephen L. Cook,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83. 차일즈(Brevard S. Childs)의 주장도 사 13장 5절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군대가 한 나라가 아닌 온 땅을 멸하려 온다는 것과 사 13장 10, 13절의 하늘의 암흑화와 우주적인 진동에 관한 묘사가 세상 끝을 암시하는 묵시 현상임을 뒷받침해준다. Brevard S. Childs, "The Enemy from the North and the Chaos Tradition" *JBL* 78 (1959), 196-197.

떻게 드러내는지 문학 구조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3. 요엘서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 1) 요엘서 4장의 문학적 구조와 의미

I. 열방에 대한 심판 예고	1-8
A. 유다의 운명 반전을 통한 열방에 대한 일반적 심판 예고	1-3
B. 열방에 대한 구체적 심판 예고	4-6
C(A'). 유다의 운명 반전을 통한 열방 심판 재확인	7-8
II. 심판을 위한 야훼의 열방 소환과 심판주 야훼의 날	9-17
A. 심판을 위한 야훼의 열방 소환	9-11
B. 소환 이유: 심판주 야훼의 좌정	12
C(A').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날로서의 야훼의 날	13-16
D(B'). 심판 목적: 시온에 임재하신 야훼를 인지하게 하기 위해	17
III. 유다의 회복 예고	18-21
A. 회복의 물질적 차원	18
B. 열방의 운명	19
C(A'). 회복의 영적 차원	20-21

요엘 4장의 문학적 짜임새를 살펴보기 전에 요엘서 전체에서 4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엘 1-2장에서도 역사적 요소와 묵시적 요소의 혼재를 주장하는 볼프는 요엘 2장 18-20절을 중심으로 재앙에 대한 탄식 촉구와 탄식에 대한 야훼의 응답으로 양분한다. 요엘 4장 4-8절의 침언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요엘 4장은 요엘 2장 1-11절의 예루살렘에 임박한 종말론적 재앙에 대한 대칭으로서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요엘

4장의 초점이 종말에 발생할 열방 심판과 유다 회복이라는 대조적인 묵시적 사건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렛도 역사적 관점과 종말의 묵시적 관점의 혼재를 주장한다. 요엘 1-2장과 3-4장을 각각 역사와 묵시의 이분법적 구도로 보지 않는다. 요엘 2장 1-11절에도 묵시적 모티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요엘 2장 1-11절에서 야훼의 도구로서의 묵시적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교차대구법에 의해 요엘 2장 20절의 묵시 군대의 패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이와 맞물린 또 다른 교차대구법에 의해 요엘 2장 20절은 열방의 종말론적 파멸과 유다의 회복을 거론하는 요엘 4장과 교차대구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요엘 4장은 야훼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에 열방에 대한 전면적 심판과 유다의 회복이란 묵시적 모티프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쿡(Stephen L. Cook)도 가렛과 유사하게 요엘 1장과 2장 17절에서 생애 역사적 재앙과 묵시적 재앙을 대칭시키고 있다.<sup>16)</sup> 요엘 2장 18절 이후의 초점을 열방의 파멸과 유다의 구원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요엘 2장 18-27절과 2장 28절-4장 21절을 각각 즉각적이며 역사적인 구원 신탁과 묵시적 구원 약속으로 양분한다. 전자의 경우 현실 역사 속에서의 땅의 회복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의 악의 세력의 표상인 요엘 2장 20절의 ‘북쪽 군대’를 현실 역사와 관련지어야 한다는 점은 문제다. 묵시적 군대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4장을 종말의 묵시적 구원 사건으로 본 점은 타당하다.

요엘 4장의 전반적인 초점이 종말에 일어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돼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요엘 4장의 문학적 짜임새가 종말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 사건의 대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

16) Stephen L. Cook,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107.

엘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8절에는 열방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7절은 실제 심판을 수행하는 절차로서 열방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환하여 심판대에 세우고 야훼가 재판장으로 재판장석에 좌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야훼의 날이다. 18-21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야훼가 종말의 위기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시는 반면에 자신의 신실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낙원의 시대를 여는 종말의 목시적 사건을 뜻한다.

열방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첫 단락 1-8절에서 1절은 접속사 ‘키(כִּי)’로 시작된다.<sup>17)</sup> 여기서 ‘키’는 이유보다는 강조의 의미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다. 곧 ‘실로’ 혹은 ‘정녕’이라고 번역해야 한다.<sup>18)</sup> ‘키’가 구문론적으로 요엘 3장 1-5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에 나오는 וּבַיּוֹם הַהוּא וּבַיּוֹם הַהוּא יִיבֶן־בָּ (바암밧 하핌마 우 바에트 하히/그 날들에, 그리고 그 때에)과 더불어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3:1-5)이 일어나는 날에 연이어 일어날 사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곧, ‘실로, 유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 그 때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어 발생할 열방에 대한 심판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절인 8절은 1-8절의 말씀이 야훼의 말씀임을 야훼의 말 확인 공식인 וְכִי אֶדְוֹנָי דִּבֶּר/야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로 확인해준다. 야훼의 진실된 약속임을 확증해주는 것이다. 단락의 시작인 1절의 시간적 언급과 단락의 종결인 8절의 야훼의 말씀 확인 공식이 한 단락의 형식적 구분을 말해준다(참고: 왕상 14:11; 사 22:15; 욥 18). 더 나아가 이 단락의 내용적 초점도 열방에 대한 심판에 집중돼 있다.

17) 개역개정판에서는 ‘보라’로 시작하는 반면에, 새번역에는 “때가 되어 그 날이 오면”으로 번역돼 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키’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 반면에, 새번역에서는 ‘보라, 그 날들에 그 때에’와 함께 연결시켜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절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18) Wolff, 윗글, 76.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An Outline*, 2<sup>nd</sup>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73.

1-8절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1-3, 4-6, 7-8절. 1-3절은 열방을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반면에, 4-6, 7-8절은 열방을 2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1-3절은 열방을 통칭으로 거명하는 반면에, 4-6절은 열방 중에서 두로, 시돈, 블레셋을 대표적으로 거명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소단락의 구분절인 4절의 서두에 **וְיָגִיד**(웨감/그리고 또한)이란 접속사와 부사가 함께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4-8절이 산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1-3절과의 형식적 차별성을 시사한다. 특히, 맛소라 본문에서는 새로운 소단락의 서두임을 암시하듯 ‘웨감’을 별도의 줄에 기록하고 있다.<sup>19)</sup> 내용적인 면에서도 1-3절은 열방에 대한 일반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4-8절은 열방 가운데서 두로, 시돈, 블레셋<sup>20)</sup>이란 특정 국가를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4(-6)절은 수사의문문을 통해 그들의 야훼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야훼의 즉각적인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반해 7-8절은 그들의 희생양이 됐던 유다 백성을 일깨워 그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유다가 야훼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7절 서두에 1인칭 감탄 지시사인 ‘히니’(הִנֵּה)를 사용하여 소단락의 전환을 알려준다.

두 번째 단락인 9-17절은 9-11, 12, 13-16, 17절의 네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야훼의 날에 일어날 열방에 대한 소환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 4-8절에서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9-17절에서는 다시 열방을 포괄적으로 언급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9절부터 다시 시어체로 전환되면서 단락의 형식적 구분을 명료하게 만든다. 또한 동사의 형태도 명령형으로 바뀐다. 9a에서 야훼가 예언자로 하여금 열방에 야훼의 포고령을 선포하게 한다. 9b-11절에 나오는 포

19) R. J. Coggins, *Joel and Amos*, NCBC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5.

20) 요엘이 대제국이 아닌 이 소국들을 언급한 이유는 ‘야훼의 날’에 유다를 괴롭힌 대제국은 물론 소국들조차 야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사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비교: 욕 4:19).

고령의 내용은 열방과 그들의 전사에 대한 야훼의 소환이다. 열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며, 용사들을 무장시키며, 진군하게 하라는 것이다. 또한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라는 것이다(비교: 사 2:4; 미 4:3). 강한 용사라는 용사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다. 열방에게 야훼의 소환 명령을 전달한 예언자는 11b절에서 다소 어색하게 명령형의 형태로 열방 군대에 대항하여 야훼의 군대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야훼께 부탁한다. 그러다가 12a절에서 다시 열방을 향하여 소환 명령을 내리는데, 앞의 명령형 동사와 달리 기원을 나타내는 지시형(Jussive)로 바뀐다. 12b절에서 소환의 이유를 열방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야훼가 좌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9-11절에서는 열방과의 전투를 위한 전사로서의 야훼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면, 여기서는 심판주로서의 야훼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야훼가 심판주로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보좌에 좌정한다는 사실, 곧 야훼가 우주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슥 14:9; 시 9:8-9[한, 9:7-8]).<sup>21)</sup> 13-16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재론하면서 ‘판결의 골짜기’<sup>22)</sup>에 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된 많은 무리(אַנְיָוָה)[하모님]를 묘사한다(참고: 겔 39:11; 사 13:1-11). 13절에서 ‘수확 은유’를 통하여 열방의 죄악이 무르익어 심판을 받을 때임을 부각시킨다. 이 판결이 이루어질 날은 바로 종말<sup>23)</sup>의 사태가 전개되는 ‘야훼의 날’이다. 9-11절의 야훼의 심판을 받기 위한 소환이나 13-16절의 야훼의 날에 이루어질 소환된 열방에 대한 심판 모두 열방에 대한 야훼의 심판에 초점이 있기에 평행(AA’)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2절은 12a절이 열방에 대한 소환을 재론하지만 강조점은 12b절에 있다. 왜냐하면 야훼의 소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곧, 여호사밧

21) Wolff, 윗글, 80. 왕의 심판자로서의 기능은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왕상 3:16-28).

22) ‘여호사밧 골짜기’와 동일시되며, אַנְיָוָה(하루츠/결정)의 어근 אָנָה(하라츠)의 의미인 ‘자르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Wolff, 윗글, 81.

23) 종말론 모티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라.

골짜기로 소환하는 이유는 야훼가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17절에서도 초점이 지상의 거주지인 시온의 보좌에 거주하시는 야훼에게 있기 때문에 평행(BB')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야훼의 좌정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있는 반면에, 평행 구절인 17절에서는 '인지 공식'을 통해 야훼의 임재와 주권적 통치에 대한 인지가 예루살렘(시온)에서의 자기 백성에 대한 안전과 구원과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단락인 18-21절 역시 18, 19, 20-21절의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단락의 서두인 18절은 새로운 시간절인 '그 날이 오면'으로 시작한다. '그 날'은 종말의 날인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을 지칭한다. 이어 시온의 보좌에 임재하신 야훼로 인하여 성취될 유다의 물질적인 회복을 언급한다. 초점이 유다에 있다. 19절은 열방을 대표하는 이집트와 에돔에 초점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인 그들의 파멸적인 운명을 언급한다. 20-21절의 초점은 다시 유다를 향한다(ABA'). 20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속성에 초점을 둔 후에, 21절에서 야훼가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온의 자기 보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통하여 말한다. 분사형인 יָשַׁב(쇼켄/거주하다)를 통하여 임재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유다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시온에 임재하신 야훼를 언급함으로써 유다의 야훼와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 곧 영적 회복을 강조한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한 단락인 9-17절을 강조한다.<sup>24)</sup> 9-17절을 둘러싸고 있는 1-8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18-21절은 유다에 대한 회복을 예고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결과의 중심 단락(9-17절)에 자리잡은 두

24) 박철우도 올 4장이 삼단양식의 문학적 짜임새를 가지고 있으며, 9-17절이 4장 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을 거론한 바 있다(박철우, "요엘서 4장의 구조 연구," 『신학사상』, 67 [1989], 813-845).

평행 단락 AA'//BB'를 통해 '판결의 골짜기'에 소환된 열방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야훼의 좌정과 '야훼의 날'의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과 구원을 이루는 야훼의 임재와 주권적 통치를 강조해주는 것이다. 결국 본문의 문학 구조의 초점은 종말에 유다의 대적에 대한 전면적 심판과 유다의 영원한 회복이란 대조적 사태를 통하여 야훼의 주권적 통치의 도래를 강조하는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부각에 있다.

## 2)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위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엘 4장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경험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촉발된 묵시적 종말 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았다. 이 묵시 사상은 요엘 4장 안에서 야훼의 날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대조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이런 대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온에 도래할 야훼의 주권적 통치를 부각시킴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대조 속에 부각된 시온에서의 야훼의 통치가 실제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에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기능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

요엘 4장에는 묵시의 핵심적인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종말론 사상이 나타난다. '종말론'은 마지막 날에 관한 사상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역사 속에서의 한 시대의 종결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펜하이머(B. Uffenheimer)는 이사야, 학개, 스가라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종말론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sup>25)</sup> 첫째, 현재 역사 안에서 대적을 과멸

25) B. Uffenheimer, "From Prophetic to Apocalyptic Eschatology," H. G. Reventlow(ed.), *Eschatology in*

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을 가리킨다는 믿음이다. 주전 8세기에 앗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제한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오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앗시리아는 패배하고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예로 들 수 있다(참고: 사 9, 11장). 한 역사 시대의 마감으로서의 종말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의 역사와 분리된 초역사가 펼쳐지는 날을 가리킨다. 즉, 현재의 역사가 종결되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한다(참고: 사 24-27장). 셋째, 현재의 역사와 종말을 동일시한다. 즉, 현재를 종말의 개시로 간주한다. 예로, 고레스의 칙령(스 1:2-4)이 구원의 메시아 시대를 열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킬 것으로 보는 형태이다(참고: 사 40-55장). 이의 효력은 이스라엘은 물론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종말의 임박성과 초월성 및 보편적 영향을 말해준다. 넷째,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을 메시아적 왕으로 앉힘으로써 종말의 시대가 전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상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움으로써 종말의 시대를 연다는 입장이다. 다분히 인위적인 입김이 담긴 종말론 이해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입장은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종말로 간주하는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은 역사의 마지막, 곧 초역사로 접어드는 때를 진정한 종말로 간주한다. 전자를 예언적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후자를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부른다.<sup>26)</sup> 전자는 지상에서의 한 정치 체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00-217.

26) 물론, 정경 내에서 본격적인 묵시적 종말론은 다니엘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요엘서는 묵시 장르의 형식적인 틀인 이야기체로 돼 있지 않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도 종말론 외에 역사 결정론과 이원론 같은 묵시적 모티프의 흔적은 있지만, 또 다른 모티프인 사후 예언, 부활, 저세상으로의 여행, 천사의 중재, 천상에 대한 환상, 동물 상징주의, 기괴한 이미지, 수비학,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별 구분 도식 등이 빠져 있다. 묵시 혹은 묵시문학의 특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J. J. Collins, ed.,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9). H. G. Reventlow,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A Comparative Study," H. G. Reventlow(ed.),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후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이라 할 수 있다. 예언자의 종말 예언이 현재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이라 하기 어렵다.<sup>27)</sup> 비록 우주적인 차원이 포함되더라도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을 구원의 궁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말론이라 보기 어렵다.<sup>28)</sup> 그렇다면 요엘 4장은 어떤가?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한 정치 체제의 종결로서의 종말론인가? 세상의 종결로서의 종말론적 특성이 있는가?

요엘 4장에서 종말론 사상은 ‘야훼의 날’ 사상과 관계가 있다. ‘야훼의 날’은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로서 심판 또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심판이나 구원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이방을 위한 것인지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재했던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방 국가에 의해 억압을 받는 날로 간주되었다(호 11:5; 암 3:9-11; 사 5:26-30).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진 포로기 이후에는 이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 전염병, 흉작 같은 자연 재앙의 형태로 발생한다(학 1:5-6; 2:14-19; 말 3:9-12). 또는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욘 2:1-11). 이방에 대한 구원의 날(사 2:2-4; 11:10; 25:6-9; 숙 2:11)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 포로로 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거나 땅이 회복되는 날을 가리킨다(렘 31:1-6; 겔 36:33-36; 습 3:11-20; 말 3:17). 그 회복된 땅에 새로운 다윗계열의 왕이나 메시아 또는 야훼가 직접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게 된다.

---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69-188. D. S. Russell, *The Methods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 AD 100*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특히 104-139를 보라.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 다니엘의 목시록, 새롭게 읽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특히 15-66, 351-409. Cook, *Prophecy & Apocalypticism*, 171, n. 21.

27) S. Mowinckel, *He that Cometh* (Oxford: Basil Blackwell, 1959), 131.

28)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후 시대 초기 이전의 예언에서는 더 이상의 파괴가 불가능한 구원의 궁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율글, 173-175를 참고하라.

요엘 4장에서는 다윗계열의 왕이나 메시아의 흔적<sup>29)</sup>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요엘 4장의 중심 단락인 9-17절은 야훼의 날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위해 심판주 야훼가 시온의 보좌에 좌정한 사실을 강조한다. 야훼의 직접 개입, 곧 온 세상에 대한 야훼의 통치를 말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 곧 묵시적 종말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9-17절에 녹아 있는 묵시적 모티프가 이를 뒷받침한다. 9-11절에서 야훼가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 소환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소환을 통한 심판은 전쟁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열방의 군대와 야훼가 진두지휘하는 군대가 대결을 벌이게 된다. 단순히 한 두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는 전면성을 띤 전쟁이다. 11a절에서 이 군대를 **קִבְּצוּ אֶת-כָּל-לְבָבוֹת**(콜 학고 임 밋사비브/사방으로부터의 모든 민족)이라고 지칭한다. 11b절에서 예언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야훼가 이 군대와 맞서기 위해 야훼의 천상의 군대를 동원한다: “야훼여, 당신의 영웅들을 내려오게 하소서!”

야훼의 군대와 대결하는 사방 온 민족의 군대는 묵시의 맥락에 위치한 요엘 2장 20절의 북방 군대와 연관이 있다. 요엘 4장 11절의 사방 온 민족의 군대, 악의 군대가 마지막 날인 야훼의 날에 심판을 받아 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엘 2장 20절의 북방 군대가 야훼의 심판으로 파멸 당한다. 가렛은 이 북방 군대를 종말의 비밀을 풀어내는 묵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인 맞서리야 군대(사 14:31; 습 2:13)나 바빌론 군대(렘 6:1, 22)가 북쪽으로부터 침략했다. 때때로 침략군의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단순히 북쪽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렘 1:14-15). 더욱 중요한 것은 곡의 묵

29) 본격적인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를 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천상의 존재로서의 “인자 같은 이”(단 7:13)는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거론하는 메시아(인간)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ussell, 윗글, 324-352. 또한 다음 논문도 참고하라.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49 (2013), 340.

시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왔다고 언급한다(겔 38:6, 15). 차일즈 또한 북방 군대의 목시적 차원을 에스겔 38장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건이 역사의 차원으로부터 목시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훗날에 북방으로부터 온 군대(겔 38:6, 15; 39:2)를 잠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야훼께서 이 군대를 파멸시킨다. 에스겔 38장 19절에 나타나는 악과의 대결의 날, 야훼의 승리의 날에 발생할 대진동을 요엘 4장 16절의 천지의 대진동과 비교하며 요엘 4장 11절의 ‘사방 온 민족의 군대’의 침입을 태초의 ‘혼돈으로의 회귀’로 간주하며 세상 끝을 암시하는 목시적 종말론과 연관됨을 말한다.<sup>30)</sup> ‘진동’을 의미하는 ‘라아쉬’(אָרִישׁ)가 포로기 이후에 세상이 혼돈으로 회귀할 때의 마지막 진동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sup>31)</sup> 그 증거로 북방 대적 전승과 관련하여 포로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대적이 역사적 지평 내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략과 관련하여 ‘라아쉬’가 결코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sup>32)</sup> 이 대진동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는 자연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우주적 현상(을 4:15; 비교: 사 13:10; 숙 14:6; 계 6:12)과 동반되어 현 세상 질서를 전격적으로 뒤엎는다. 태초의 혼돈 상태로의 회귀이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할 마지막 진동이다. 그러므로 이 ‘진동’은 옛 세상과 새 세상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다.

이 마지막 ‘진동’ 후에 야훼가 통치하는 새 세상이 전개된다. 요엘 4장 17절은 야훼가 통치하는 이 새 세상의 전개를 야훼께서 시온에 거주하심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야훼의 시온에서의 거주를 칼 현재분사형인 ‘쇼켄’(שׁוֹכֵן)으로 표현하고 있다. 야훼가 시온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절인 요엘 4장 21 절에서도 동일한

30) Childs, 윗글, 196-197.

31) 윗글, 197.

32) 윗글, 197.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sup>33)</sup> 이를 통해서 시온이 야훼의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요엘의 묵시 사상의 근거에 시온 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거룩해질 예루살렘을 통해 이방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범접하지 못할 것임을 말한다. 이미 요엘 3장 5절(한, 2:32)에서 시온산이 종말에 심판에서 살아남을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의 장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 불가침의 도시의 영속적인 안전성 속에 시온신학이 동지를 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엘 4장 16절부터 4장 21절까지 마지막 여섯 절에서 세 번(율 4:16, 17, 21)씩이나 반복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의평행법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불가침의 장소인 야훼의 거주지로서의 시온 성소와 왕의 통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평행시킴으로써 야훼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룩한 산 위 성전에서 야훼의 왕적인 통치를 통해 구원의 궁극성이 확보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천지의 격변이 발생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야훼가 통치하는 낙원의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율 4:18-21).

## (2)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기능

우리는 위에서 야훼가 종말의 ‘야훼의 날’에 대적으로서의 열방을 심판의 자리인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에 모아 심판함을 보았다. 이 심판은 온 열방과 야훼와 그의 군대와와의 전면적 전쟁의 형태로 전개됐다. 이 전쟁을 통해 야훼가 그의 영원한 거처인 시온에 거주하게 된다. 이로써 유다는 다시는 요동치지 않을 영원한 구원, 구원의 궁극성을

---

33) 헨슨은 동사 ‘샤칸’(שָׁקַן)의 칼 형태가 제사장 문서에서 야훼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본다(P.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249 n. 56). 참고로 신명기역사서에서는 ‘샤칸’의 피열형을 사용하여 ‘야훼의 이름’의 거주를 나타낸다(신 12:11; 14:23; 26:2). 요엘서에는 신명기역사서의 ‘이름 신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G. Ahlström, *Joel and the Temple Cult of Jerusalem* [Leiden: Brill, 1971]), 125.

확보하게 됨을 말한다. 또한 야훼는 그의 거처인 시온과 평행된 왕의 보좌인 예루살렘에서 왕적인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종말에 유다는 역사로부터 초역사로 넘어가 현재와 전혀 다른 온전한 회복의 세상, 낙원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묵시의 시대를 열게 된다.

예언자 요엘은 왜 야훼의 날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의 야훼의 통치를 강조하는가? 언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앞의 연구사에서 포로기 이후에 종말론, 정확하게는 묵시적 종말론이 등장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대의 역사적 정황이 무엇이며, 이 묵시적 종말론의 기능이 무엇인가? 플뢰거는 포로기 이후 시대(주전 400 이후)에 종말론을 옹호하는 예언자 분파와 비종말론적인 신정주의 제의 분파와의 갈등 구도를 전제한다.<sup>34)</sup> 옛 예언자의 이상을 옹호하는 종말론적 분파가 야훼의 새로운 통치(묵시 시대의 전개)를 내세움으로써 신정주의자들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볼프도 야훼의 통치에 의한 묵시적 새 세상의 전개가 제의 분파에 대한 종말론 분파의 공격 무기라는 플뢰거의 의견에 동조한다. 요엘서에 예전적인 형태가 배여 있고 제사장 역할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에 근거한 예전의 준수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주전 4세기 전반에 신정주의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를 은밀하게 비판하면서 요엘도 종말론적 그룹의 일원으로서 야훼에 의한 새 통치를 기대했던 것으로 본다.<sup>35)</sup> 비록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묵시적 종말론의 시기를 주전 515년 이전으로 제한하지만,<sup>36)</sup> 묵시의 등장에 관한 헨슨의 주장도 플뢰거와 볼프와 궤를 같이 한다. 억압받는 환상가 그룹이 야훼의 급진적인 개입의 이상에 기댈으로써 기존 기득권 세력(사독계

34) Plöger, *위글*, 96-105.

35) Wolff, *위글*, 8-12, 36.

36) Paul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 1979), 237.

제사장 그룹)을 타파하고 목시의 시대를 열려 했다고 본다.<sup>37)</sup> 이들의 주장은 모두 권력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갈등의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낀 주변부가 중심부를 공격하기 위해 목시적 종말론을 도입했다고 보며, 요엘도 이 주변부의 일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쿡은 요엘서에 이 같은 파벌 간 갈등이나 요엘이 제의 지도자를 공격한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sup>38)</sup> 오히려 요엘은 포로기 이후 제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독계의 일원으로서 메뚜기 재앙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제의 지도자를 믿고 임박한 아웨의 통치를 통한 새 시대 이상을 기대하도록 촉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이의 증거로 사독계의 입김이 강하게 배여 있는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요엘서의 사상적 긴밀성을 제시한다. 요엘서에 목시적 ‘야훼의 날’(겔 7, 30장)과 북쪽 군대의 공격(겔 38-39장) 모티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4:18/겔 47:1; 슥 13:1; 14:8) 모티프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룩(을 4:17) 모티프가 에스겔서(겔 43:12)와 스가랴서의 거룩(슥 2:5; 9:8; 14:20-21) 모티프와 가깝기 때문이다.<sup>40)</sup> 쿡은 요엘이 당시 제의 지도자에게 권위를 실어주면서 사회 통합을 시도했다고 보려한다.<sup>41)</sup> 그 시기를 요엘 2장 7-9절의 예루살렘 성벽의 존재에 관한 언급에 기초하여 주전 433년 이후로 본다.

37) Hanson, *윳글*, 260-261. 이외에 레드트(Paul L. Redditt)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주전 515년과 445년 사이에 예언자 그룹에 속한 요엘이 포로기 이후 제사장 그룹의 직무 유기를 비판한 결과로 유대 종교 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이 같은 경험에 근거해서 종말론을 주장한 결과물이 요엘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요엘서에 급진적 미래의 새 시대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지만 이를 예언적 종말론의 차원에서 이해한다(P. L. Redditt, "The Book of Joel and Peripheral Prophecy," *CBQ* 48 [1986], 225-240). 버퀴스트(Jon L. Berquist)도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갈등에 근거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던 특권과 부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에서 소외된 중간 계층의 제사장, 서기관, 상인 등에 의해 목시 사상이 촉발된 것으로 본다(J. L. Berquist,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77-192).

38) Cook, *Prophecy & Apocalypticism*, 207.

39) 윳글, 199-201.

40) 윳글, 199-201.

41) 윳글, 209.

목시 사상의 의도가 그렇듯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통합과 희망 제시를 목적으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이 목시적 종말론을 내세웠다는 쿡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만으로 이런 사상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 요엘 4장 1, 4-6, 19절에 나타난 열방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요엘 4장에 나타난 야훼의 통치 시대의 도래 예고는 외세와의 관계도 중요한 감안 대상이었다고 본다. 특히, 요엘 4장 19절에서 애굽과 에돔을 거명하면서 유다 자손을 억압한 사실을 적시한다. 애굽이 제국주의적 국가라면, 에돔은 작은 나라로서 유다를 괴롭혔다. 이들은 크고 작은 대적을 포괄하여 대적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상징이다. 말라기 1장 3-4절에 에돔이 이미 폐허로 변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에돔에 대한 파멸을 예고하는 요엘 4장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역사적 배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주전 433년 이후로 보기보다는 주전 450년 말라기 이전 시대로 봄이 더 적절하다. 요엘은 포로기 이후 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 재앙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큰 나라 페르시아의 통치와 이웃 작은 나라의 위협 속에서 신앙에 회의적인 귀환 이후 포로 공동체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곧 대적 심판과 혼돈 극복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시온에 하나님의 통치의 임박한 도래를 고대하며 목시적 종말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 4. 닫는 말

지금까지 요엘 4장에 드러난 목시적 종말론 모티브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요엘서 전체가 과연 목시적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역사적 연대와 문학 구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 보았다. 그들의 주장을 통하여 목시적 모티프가 흔히 주장하듯이 요엘 3-4장뿐만 아니라 요엘 2장 1-11절에도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처럼 묵시 모티프를 확인한 후에 묵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종말론에 초점을 두고 종말에 발생할 악(대적)에 대한 심판과 전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시대의 도래, 이로 인한 낙원의 시대의 전개 등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엘 4장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요엘 4장 자체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요엘 4장의 문학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묵시적 종말론의 핵심 내용이 대적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보좌에 좌정하실 야훼를 통해 야훼의 전격적인 통치를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요엘 4장 9-17절에 초점을 맞춰 묵시적 종말론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모티프의 기능에 대하여 먼저 다양한 견해를 거론한 후에 주전 515년부터 450년 사이에 제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메뚜기 재앙과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방 통치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곧 도래할 야훼가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현재와 다른 새 시대를 열 것임을 강조하며 야훼의 여전한 통치에 희망을 가질 것을 격려하고자 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메뚜기 재앙과 열강의 위협 속에 희망을 갈무리했던 이스라엘처럼 빈발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 재앙과 급속도로 전개되는 열강의 재편 구도라는 소용돌이 속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새 시대를 고대하는데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 5. 참고문헌

박영준, “전도서에서의 종말론적 개념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43 (2012), 105-128.

박철우, “요엘서 4장의 구조 연구,” 「신학사상」 67 (1989), 813-845.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49 (2013), 323-347.

www.kci.go.kr

- Achtemeier, Elizabeth, *Minor Prophets I*,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 Ahlström, G., *Joel and the Temple Cult of Jerusalem* (Leiden: Brill, 1971).
- Berquist, J. L.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ewer,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ICC (Edinburgh: T & T Clark, 1911).
- Childs, Brevard S., "The Enemy from the North and the Chaos Tradi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 (1959), 187-198.
- Coggins, Richard James, *Joel and Amo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Collins, J. J. ed., *Apocalypse: The Morphology of a Genre*, Semeia 14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9).
- Cook, Stephen L.,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_\_\_\_\_,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Duhm, B., "Anmerkungen zu den zwölf Prophet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1 (1911), 184-88.
- Garrett, Duane A., "The Structure of Jo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8 (1985), 289-297.
- Hanson, P. D., *The Dawn of Apocalyptic: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Hiebert, T., "Joel, Book of," D. N.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1992), 873-880.

- Hiers Richard H. "Day of the Lord," D. N.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2: New York, 1992), 82-83.
- Hoffmann, Yair, "The Day of the Lord as a Concept and a Term in the Prophetic Literatur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3 (1981), 37-50.
- Kapelrud, Arvid S., *Joel Studies*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48).
- Mowinckel, S., *He that Cometh* (Oxford: Basil Blackwell, 1959).
- Plöger, O., *Theocracy and Eschatology*, Translated by S. Rudman (Richmond: John Knox, 1968).
- Prinsloo, W. 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oel*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5).
- Redditt, Paul L., "The Book of Joel and Peripheral Prophec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225-240.
- Reventlow, H. G. "The Eschatologization of the Prophetic Books: A Comparative Study," H. G. Reventlow (ed.),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69-188.
- Russell, D. S., *The Method &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Uffenheimer, B., "From Prophetic to Apocalyptic Eschatology," H. G. Reventlow (ed.), *Eschatology in the Bible and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00-217.
- Williams, Ronald J., *Hebrew Syntax: An Outline*, 2<sup>nd</sup> ed.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76).
- Wolff, Hans Walter, *Joel and Amos*, Hermeneia, Translated by W. Janzen, S. D. McBride and C. A. (Muenchow,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검색어

목시

종말론

야훼의 날

야훼의 통치

요엘(서)

## Apocalyptic Eschatology in Joel 4 and Its Function:

Highlighting Yahweh's Reigning as King in Zion and Coming of  
the New World

Seong Hyuk 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book of Joel presents us with difficult historical and interpretive problems. The date and unity of the book's composition have been very controversial issues. Another debate persisted, revolving mainly around the location of the apocalyptic motif in the book of Joel and its function. Scholars have generally been occupied by bifurcation of the book of Joel, which has divided the book at the end of Joel 2:27. Namely, they considered Joel 1:1-2:27 to be Joel's account of a historical locust plague, while they attributed Joel 3:1-4:21 to a later apocalyptic works. As for the function of the apocalyptic motif, the

[www.kci.go.kr](http://www.kci.go.kr)

scholars regarded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priestly group and the peripheral visionary group as the major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the apocalyptic.

This study starts from doubt about the aforementioned standpoint. This study shows that the book does not sharply divide into two sections at the end of Joel 2:27, because the apocalyptic motif appears even in the first section, e. g. Joel 2:1-11. The motif is scattered throughout the book. Even if the locust plague may have had some effect on the emergence of the apocalyptic idea, the locust plague was not decisive in the production of the apocalyptic idea. The event that is decisive to the production of the apocalyptic idea is the ceaseless control of the big enemy country. In this regard, the function of the motif is not relate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cult members and peripheral groups. Its function rather refers to the struggle of the post-exilic religious community featured by the central priest group's encouraging the people who were deeply discouraged under the persistent oppression of the heathen imperialism to hold onto hope.

In order to arrive at this conclusion, I will first analyze the content and function of the apocalyptic motif through the integration of historical and literary analysis. Then I will b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apocalyptic motif of eschatology on the basis of Joel 4 which makes prominent the reigning of Yahweh and the coming of the new world. I will also mention how the literary structure of Joel 4 highlights an aspect of the apocalyptic eschatology. Finally, I will mention how the motif of the apocalyptic eschatology socially functioned in the post-exilic cultic community between 515 and 450 BCE.

## Keywords

apocalyptic

eschatology

Day of Yahweh

reign of Yahweh

Joel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

[www.kci.go.kr](http://www.kci.go.kr)